

초등교사가 지각한 부정적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소진의 구조적 관계분석

김혜원(金慧原)*

이지연(李之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초등교사 283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동료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클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클수록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료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로 이어져,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클수록 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였다. 셋째, 동료와의 부정적인 관계와 소진의 관계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부정적인 동료관계, 소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매개효과, 초등교사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강사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지연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연구수 아카데미로 119(송도동)/Tel: (032)835-8160/E-mail: becoming@incheon.ac.kr

I. 서론

많은 교사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획득하는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요소로 '심리적 소진(burnout)'을 호소하고 있다(홍우림, 2015). 심리적 소진은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며 일하는 경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정서적 고갈(emotional exhaustion), 비인간화(depersonalization), 개인적 성취감의 결여(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를 주된 증상으로 보이는 심리적 증후군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Maslach & Jackson, 1996). 즉,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학교에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 내·외적 압력과 자신의 능력 이상의 요구를 인식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정신적 고갈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김미연, 2009). 이러한 심리적 소진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소진이 일단 생기면 점점 그 정도가 더욱 심각화 된다는 것이다. 즉 교사들이 심리적 소진을 조금씩 경험하다가 그 정도가 점차 더 발전하게 되면 피로감, 긴장, 초조함을 경험하게 되다가 결국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냉소적이고 경직된 반응을 보이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Cherniss, 1980). 이런 상태로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게 되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실상 곤란하다. 교사 자신이 바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도구이자 핵심매체이기 때문이다(유정미, 박성호, 유성경, 2003). 더욱이 교사의 심리적 소진은 일부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 전문성의 발달 및 수행과 관련하여 더욱 중요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홍우림, 2015).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은(2013)은 초등학교 직무환경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포함한 관계의 어려움이 초등교사의 소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하광평(1989)도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에서 중요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제시하였다.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나숙임(2013) 또한 동료교사로부터 정서적·정보적·업무적 지원을 적게 받는 교사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울 증세가 많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에 더하여, 손형국(2014)은 초등교사는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독립적 공간인 교실에서 보내고, 학습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동학년 동료교사와 동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하고, 동학년을 단위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홍우림(2015)은 초등교사가 동학년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진되기 쉽다고 하였다. 이는 교사가 교사다움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원이 동료교사라고 언급한 Greenberg(1969)의 주장과 비슷한 결과이다(임중호, 최경일, 2010, 재인용).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초등교사가 동료교사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게 될 때, 교사 자신의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고, 특히 심리적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초등교

사의 동료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초등교사의 소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상되는 것이 결국 '동료관계의 어려움'이므로 이러한 의미가 본 연구에서 보다 명료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료관계를 '부정적인 동료관계'로 명명하였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며 교사 소진에 대한 연구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즉 각각의 단일 변인들과 교사 소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에서 나아가 교사의 소진을 유발하는 위험요인이 있더라도 보호요인이 있으면 위험요인의 강도를 매개하거나 혹은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교사 소진과 관계된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조환이, 유선아, 2014). 상담에서도 매개효과가 나타났을 때 치료적 중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주는데(Culp & Beach, 1993; 최미례, 이인혜, 2003, 재인용), 그것은 매개효과가 나타난 영역에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져 매개효과를 줄일 수 있다면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심리적 소진의 관계를 단순히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단계에서 한발 나아가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를 통한 심리적 소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 즉 구체적인 매개변인이나 경로에 대한 탐색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매개변인의 확인은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기 전에 어떤 개인내적 심리과정을 거치는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예방 및 상담에서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방법을 찾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부정적인 동료관계 현상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타인과의 관계 및 타인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호의존적인 문화(김의철, 박영신, 2004)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과 애정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거부당하고 소외당하는 것은 매우 두려움을 주는 경험일 수 있다(최우경, 김진숙, 2014). 이러한 맥락에서 대인관계심리이론(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좌절된 소속감(frustrated belongingness)과 짐이 되는 느낌(perceived burdensomeness)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로 개념화하였다(Joiner, 2005). Shneidman(1988)은 대인관계에서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수치심·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력의 손상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개인에게 있어 자살 선택이라는 극단적인 위험 상황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Baumeister와 Leary(1995)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소속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정신적·신체적 건강 모두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정신적·신체적 고갈현상을 나타내는 교사의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부정적인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소진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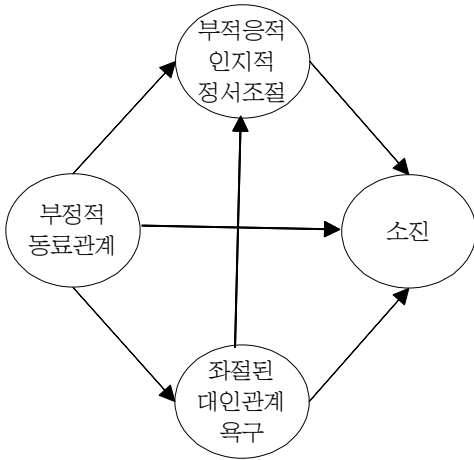
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본 연구가 적고, 무엇보다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변인을 이용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소진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고,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 속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보다 더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인지행동모델에서는 스트레스와 같은 맥락적 요인이 인지도식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결국 스트레스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인지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Rodriguez & Richardson, 2007). 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될 때, 이를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인지적 정서조절이란 불쾌한 정서와 같이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는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인지 처리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Garnefski & Kraaij, 2006). Garnefski, Kraaij 및 Spinhoven(2001)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수용, 긍정적 초점 변경, 긍정적 재평가, 조망 확대, 계획 다시 생각하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의 9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가 인지적 취약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며(이지현, 2008), 또 다른 경험적 연구들도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 후, 불쾌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여 결국 심리적 부적응을 높인다고 보고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김보미, 유성은, 2012; 최우경, 김진숙, 2014; Garnefski & Kraaij, 2007; Gross, 2002). 따라서 초등교사들이 부정적인 동료관계를 경험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인지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가 쉽고, 결과적으로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기 쉽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 가운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보다 초점을 두었고, 부정적인 동료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소진 변인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 속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역할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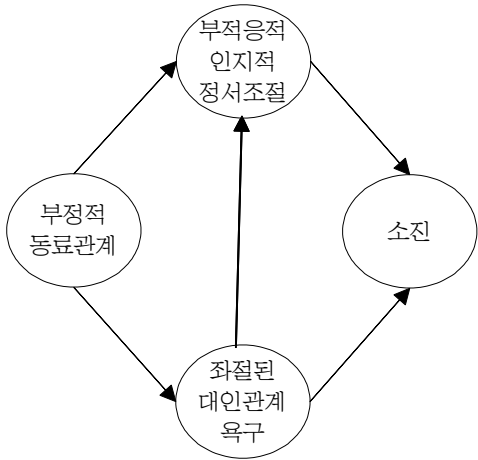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각각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 이 두 매개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선행하는 이중매개효과를 가정하였다. 비록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간의 관계를 직접 다룬 선행연구가 드물지만(최우경, 김진숙, 2014), 대인관계에서의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수치심·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력 손상을 증가시킨다는 Shneidman(1988)의 연구를 통해 교사의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리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및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소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초등교사의 소진에 대한 부정적인 동료관계의 직접적인 영향과 함께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소진을 유발하거나 유지시키는 심리과정으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역할을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를 유발하는 현상 자체에 개입하는 데는 비록 현실적인 한계가 따르지만,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악화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심리과정에 대한 상담적 개입은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인들 간의 관계와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 규명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심리적 현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등교사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그림 1)은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각각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이다. 경쟁모형(그림 2)은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두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만 주는 완전매개모형을 가정한 것이다. 이는 환경의 위험요인이 각 개인들에게 동일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보호요인에 의해 위험요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매개 혹은 완충될 수 있다는 적응유연성 모델에 근거하였는데(유정이 외, 2003), 이러한 적응유연성 모델은 교사 소진을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유정이, 2002). 즉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교사라 하더라도 모두가 소진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박미화, 2016), 교사의 소진 경험에 있어서 개인차는 위험에 처한 개인들을 부정적인 경로에 처하게 하는 위험요인과 이러한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경로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요인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Masten, 2001).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Chang(2009)은 동료관계를 비롯한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소진에 다양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포함한 직장 내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은숙, 2008; 김지은, 안선희, 2007; 이정희, 조성연, 2011; Ray & Miller, 1994)와 간접적인 영향만 유의하다는 선행연구(송명숙, 2015; 오미영, 2014)가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직접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교사의 부정적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소진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도권 소재의 초등교사 350여명을 대상으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83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283명 가운데 남교사는 47명(16.6%), 여교사는 236명(83.4%)으로 나타났으며, 교사경력은 5년 미만인 33명(11.7%), 5~10년 미만인 34명(12%), 10~20년 미만인 91명(32.2%), 20년 이상이 125명(44.2%)을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1)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재운(1995), 노종희(2001), 최명운(2010)의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교사 대인관계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상사, 동료, 학생, 학부모의 총 4부분의 대인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료교사와의 대인관계 척도 총 10문항(예: 나는 동료교사들과의 생활이 즐겁다)만을 사용하였다. 총 10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10개 문항을 모두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동료관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최명운(2010)의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나타났다.

2) 소진

초등교사의 소진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Maslach와 Jackson(1981)의 MBI(Maslach Burnout Inventory)를 김두천(1995)이 번안한 것을 강진아(2010)가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소진 척도는 정서적 고갈 9문항(예: 나는 일 때문에 기력을 다 소모한 느낌이 든다), 비인간화 5문항(예: 나는 교사가 된 이래로 사람들에게 좀 더 냉담해졌다), 개인적 성취감 저하 8문항(예: 나는 학생들과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의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22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소진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지윤(201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고갈 .93, 비인간화 .83, 개인적 성취감 저하가 .8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는 .91,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 고갈 .81, 비인간화 .74, 개인적 성취감 저하가 .64로 나타났다.

3)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Joiner(2005)의 대인관계 심리이론을 근거로 하여 Joiner 등(2009)이 초기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대인관계욕구척도(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 INQ)를 조민호(201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Joiner(2005)는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되는 느낌을 대인관계욕구(Interpersonal needs)라고 명명하였는데, 대인관계욕구로 그대로 직역하여 사용할 경우, 개인이 관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결핍과 고통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로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수정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척도는 짐이 되는 느낌(15문항, 예: 요즘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다), 좌절된 소속감(10문항, 예: 요즘 나는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것 같다)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우경(201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5,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짐이 되는 느낌 .91, 좌절된 소속감 .90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는 .94,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짐이 되는 느낌 .89, 좌절된

소속감이 .90으로 나타났다.

4)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Garnefski(2001)가 개발하고 김소희(2004)가 번안한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의 하위요인 가운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는 자기비난(4문항, 예: 그 일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타인비난(4문항, 예: 그 일이 일어난 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반추(4문항, 예: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나의 감정을 되짚어 생각한다), 파국화(4문항, 예: 내가 겪은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우경(2013)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전체 Cronbach' α 는 .91,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비난 .78, 타인비난 .86, 반추 .81, 파국화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 α 는 .87, 하위 영역별 신뢰도 계수는 자기비난 .77, 타인비난 .85, 반추 .71, 파국화가 .84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초등교사의 부정적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소진 각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부정적 동료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부연하면,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및 소진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고, 부정적 동료관계는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3개의 꾸러미로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마지막으로 부정적 동료관계와 소진 사이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매개의 총합에 대한 결과만을 제공하고,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팬텀변인은 일종의 가상변인으로 모델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인이다(배병렬, 2011; 홍세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283)로부터 무선험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연구결과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 지수를 살펴보았다. 예측 변인 간 상관이 클수록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되는데(Marsh, Martin, James, & Richard, 2004), 본 연구에서는 소진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나머지 변인들의 VIF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1.19~1.51까지 분포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우려될 수준 $VIF > 10$ (송병호, 최규정, 2000)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결과적으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소진이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었고($r=.55$), 부정적 동료관계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비슷한 정도의 관련성을 보였다($r=.51$). 그 외에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소진($r=.45$),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39$), 부정적 동료관계와 소진($r=.38$), 부정적 동료관계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r=.23$)도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2개의 측정변수들이 교사의 부정적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소진의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측정변수인 자기비난의 요인부하량이 .30이하로 낮게 나타났다(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1번, 7번, 10번, 15번 문항). 따라서 일반적으로 표준 요인 부하량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 척도를 제외하고 총 11개의 측정변수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38, N=283)=147.63, p<.001, CFI=.94, TLI=.91, RMSEA=.10$ (90% 신뢰구간 .084~.119).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45~.93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부정적 동료관계는 .86~.91,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83~.89,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62~.93, 소진이 .45~.83이었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동료관계1	1											
2. 동료관계2	.83**	1										
3. 동료관계3	.78**	.78**	1									
4. 짐이 되는 느낌	.43**	.40**	.38**	1								
5. 좌절된 소속감	.50**	.49**	.44**	.74**	1							
6. 자기비난	.17**	.12*	.07	.28**	.19**	1						
7. 타인비난	.18**	.19**	.17**	.20**	.25**	.04	1					
8. 반추	.18**	.14*	.09	.22**	.21**	.52**	.44**	1				
9. 과국화	.17**	.21**	.18**	.42**	.37**	.26**	.62**	.58**	1			
10. 정서적 고갈	.17**	.20**	.15*	.38**	.35**	.06	.41**	.32**	.50**	1		
11. 비인간화	.25**	.33**	.26**	.40**	.42**	-.03	.47**	.24**	.52**	.66**	1	
12. 개인적 성취감 저하	.48**	.45**	.47**	.45**	.50**	.15*	.11	.08	.24**	.29**	.34**	1
평균	1.99	1.59	1.70	2.08	2.22	2.81	2.52	3.23	2.25	2.82	2.09	2.12
표준편차	.71	.64	.63	.74	.97	.80	.80	.73	.88	.89	.80	.61
왜도	.74	1.26	1.05	.92	.85	-.17	.06	-.67	.48	.07	.73	.70
첨도	.65	2.46	2.35	.62	.19	-.28	-.01	.68	-.12	-.38	.49	1.85
최소값	1	1	1	1	1	1	1	1	1	1	1	1
최대값	5	5	5	4.67	5.4	4.75	5	5	5	5	5	5

1. * $p < .05$, ** $p < .01$

2. 가능한 점수 범위: 부정적 동료관계(1~5), 좌절된 대인관계욕구(1~7),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1~5), 소진(1~5)

3. 구조모형 검증

초등교사의 부정적 동료관계를 예언변수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변수로, 소진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38, N=283)=147.63, p<.001, CFI=.94, TLI=.91, RMSEA=.10(90\% \text{ 신뢰구간 } .084\sim.119)$. 경쟁모형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39, N=283)=148.67, p<.001, CFI=.94, TLI=.91, RMSEA=.10(90\% \text{ 신뢰구간 } .083\sim.117)$. 따라서 부정적 동료관계에서 소진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과 χ^2 차이 검증을 통해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그림 2]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Delta \chi^2(1, N=283)=1.04(p>.05)$.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147.63	38	.91	.94	.10(.084~0.119)
경쟁모형	148.67	39	.91	.94	.10(.083~0.117)

4. 최종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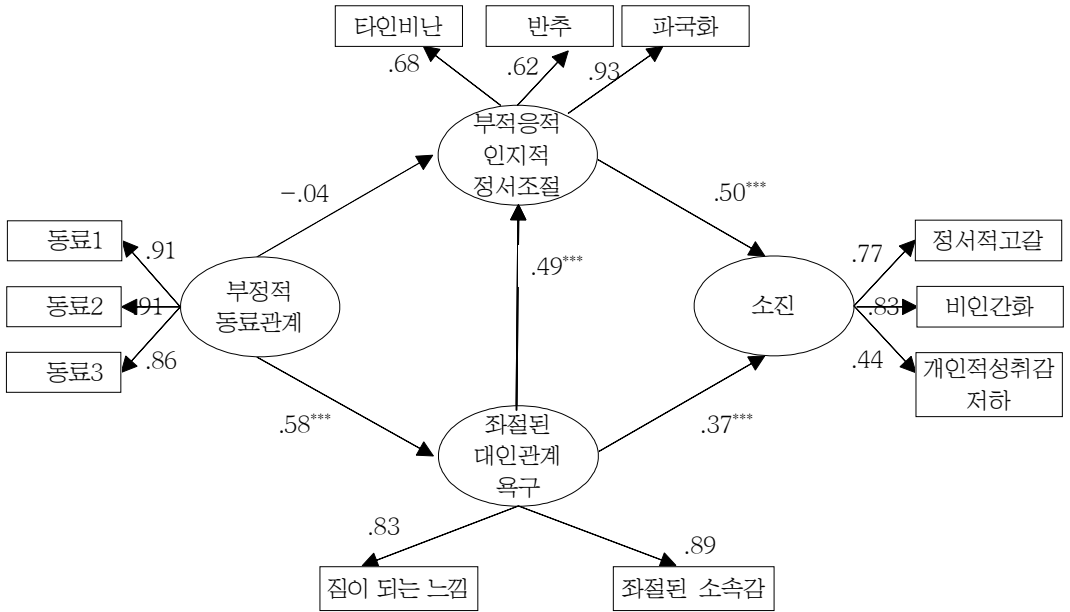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4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 동료관계가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에 미치는 영향($\beta=.58$)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50$). 이외에도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beta=.49$),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beta=.37$)이 유의하였다.

다중상관자승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는 모형에 포함된 외생변수들이 내생변수를 설명하는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34,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22, 부정적인 동료관계,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소진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57로 나타났다.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부정적 동료관계 →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2.05	0.58	0.23	9.03***
부정적 동료관계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04	-0.04	0.07	-0.53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12	0.49	0.02	5.3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소진	1.42	0.50	0.22	6.56***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소진	0.25	0.37	0.05	5.37***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5.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부정적 동료관계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9, 95% Bias-corrected CI=[.19, .43]으로 유의하였고,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25, Bias-corrected CI=[.17, .36]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부정적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22, 95% Bias-corrected CI=[.11, .33]으로 유의하였고,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이중으로 매개하는 경우의 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14, 95% Bias-corrected CI=[.09, .20]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부정적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비표준화계수는 -.02, 95% Bias-corrected CI=[-.11, .07]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부정적 동료관계	→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0.29* (.19~.43)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소진	.025* (.17~.36)
부정적 동료관계	→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소진	.022* (.11~.33)
부정적 동료관계	→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소진	.014* (.09~.20)
부정적 동료관계	→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 소진	-.02 (-.11~.07)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와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을 규명하고, 본 연구를 통해 초등교사의 소진을 예방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가설모형의 적합도 및 매개변인들의 간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경쟁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가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두 변인의 관계를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및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완전 매개하는 모형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에서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서 나타난 직접효과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교사의 동료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좌절된 대인관계육구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결과라는 선행연구(Joiner, 2005) 및 인간관계를 포함하는 개념인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우경(2013)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클수록 부정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의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심리적 고통·수치심 및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고, 자신의 정서 및 행동에 대한 통제가 손상될 수 있다는 Shneidman(1988)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왜곡하는 생각을 갖고 자신의 지지체계 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이 기존의 부적응적 인지 도식을 촉발시키거나 혹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위험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Rodriguez와 Richardson(2007)의 주장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대학생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이를 처리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기가 쉽고,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보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지현(2008)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클수록 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관련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 우울·자살 등의 심각한 정신적 문제와 관련된다는 선행연구(김효진, 2014)를 근거로 하여 논의의 범위를 넓히면, 본 연구의 결과는 좌절된 대인관계육구가 심리적 통증을 일으키고 자살생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결과(최우경, 2013; Joiner, Van Orden, Witte, Selby, Ribeiro, Lewis, & Rudd, 2009; Van Orden, Witte, Gordon, Bender, & Joiner, 2008)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함께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고독감은 흔히 자신이 무가치하고 열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심하면 우울·슬픔·절망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권석만(1995)의 주장 및 교육현장에서의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대인간 요인들에 의한 스트레스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을 초래한다는 Betoret(2006)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욱이 교직사회 자체가 교장, 교감 외에 모두 평교사로 구성되기 때문에 동료교사를 포함하여 긍정적인 대인관계 경험이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박수진과 손은령(2011)의 연구와도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나아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관계나 집단에 속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소속에 대한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정신적·신체적 건강에서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Baumeister와 Leary(199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할수록 소진 경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의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요구 분석 연구에서 소진 예방을 위해 정서조절 및 대처가 가장 우선적이라고 보고한 김효진(2014)의 연구결과와 관련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사용하는 교사가 이를 덜 사용하는 교사보다 소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보고한 신민주(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같은 인지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최우경, 김진숙, 2014; Rodriguez & Richardson, 2007).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직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우경과 김진숙(2014)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를 다양한 관계변인 뿐 아니라 학업 및 진로변인까지 포함하여 굉장히 폭넓게 측정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학교 조직 내에서의 동료

관계만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스트레스와 인지적 정서조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초등교사의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교사의 동료관계가 부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진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동료와의 관계가 좌절된 대인관계의 욕구로 이어질 때 소진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 자체를 스트레스로 보기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며 심리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를 강조하는 Lazarus와 Folkman(1984)의 관점에 입각하여 생각해볼 수 있겠다. 즉, 부정적인 동료관계 자체보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계경험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지지체계 내에서의 소외된 개인의 느낌, 즉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로 연결되어 개인에게 스트레스 경험으로 해석될 때 소진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를 포함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으로 이르는 경로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밝힌 최우경과 김진숙(201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소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단순 매개효과는 나타났다. 사실상 초등교사의 대인관계는 동료와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관계를 포함할 것이다. 따라서 동료와의 관계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적 지지체계가 완충작용을 하면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개인이 동료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얼마나 심각한 스트레스로 평가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라는 개념은 부적응적 역할을 하는 대인관계문제 개념과 유사하고(최우경, 2013), 부정적인 동료관계보다 더 포괄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개념일 수 있다. 즉,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직장 내 동료관계에 국한된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면 좌절된 대인관계욕구는 현재 개인이 속한 전체적인 사회관계망을 구성하는 요소 전반에 대한 평가의 합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부정적인 동료관계 자체가 아니라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과 지지체계 내에서의 소외된 느낌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을 증폭시켜 소진을 더 크게 경험하게 한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면 개인이 심리적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김소희(2004)의 연구결과 및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정적 매개하고,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부적 매개한다는 이자영과 최응용(201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이르는 경로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이중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보다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 소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중매개효과는 동료와의 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사회적 지지체계 내에서 적절히 통합되지 못하고, 그 지지체계 내에서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결국 소진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여기서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와 이로 인해 증폭되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소진을 유발하는 심리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결과는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면 불쾌한 정서를 조절하기 위하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이는 다시 심리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겠다(김보미, 유성은, 2012; 최우경, 김진숙, 2014; Garnefski & Kraaij, 2007; Gross, 2002). 나아가 높은 심리적 소진을 호소하는 중등교사들(소진 상위 15%)이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예방 프로그램으로 정서조절 및 대처, 대인관계, 심리치료, 정신건강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효진, 2014)를 통해서도 교사의 소진이 대인관계·정서조절·대처방식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실질적으로 초등교사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교사들과 동학년 단위로 학년의 업무를 수행하는 양면적인 조직 문화에 있기 때문에 동학년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소진되기가 더 쉽다(홍우림, 2015). 사실상 이러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고, 동료교사와의 관계 증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만으로 교사의 소진을 감소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매개변인으로 확인된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및 좌절된 대인관계욕구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즉, 초등교사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할 때에 자신의 동료관계를 돌아보도록 돕고, 자신이 어떤 좌절된 관계 기대 속에 더 깊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는지, 또한 갈등 및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부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좀 더 적응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초등교사가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 좌절된 소속감이나 짐이 되는 느낌을 경험하는 정도를 평가하고, 현실 검증을 통해 주변의 관심 및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왜곡되어 있다면 이러한 지각을 바꾸어 자신의 현실을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상 교사의 소진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탈진을 넘어서서 정신 병리로 연결될 위험이

높고(박주연, 2014),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강진아, 2010; 유정이, 2002), 궁극적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송소원, 장석진, 이정화, 조민아, 2010). 따라서 교사의 소진이 교사 개인 및 교육현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사 소진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 소진의 중요한 연결 통로가 되는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전문적·체계적 지지 시스템 구축 및 적응적 정서조절훈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이를 소진 정도가 높은 교사로 스크린 된 교사들에게 먼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인천과 일산을 포함한 경기도권 소재 초등학교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초등교사 전체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초등교사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치원 교사 및 중·고등교사 집단에 일반화하기도 도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교사의 다양한 대인관계 가운데 동료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대인관계 경험을 통제하지 못했다. 추후연구에서는 소진에 미치는 교사의 대인관계 경험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즉, 한국교원신문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1,67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의 심각한 스트레스 수준이 78.1%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체적 대상으로 학생(46.5%), 학부모(21.9%), 상급자(14.4%), 동료(14.0%)라고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송미경, 양난미, 2015, 재인용). 이를 통해, 초등교사의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및 소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대인관계망을 부정적인 동료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여러 대인 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척도는 대인관계 진단 척도 가운데 동료교사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만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동료관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주로 친밀성, 호감, 함께함, 의사소통의 측면을 측정하고 있어 갈등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동료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동료관계를 측정하는 척도를 재선택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동료관계가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관련될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충분한 이론적 고찰과 경험적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정적인 동료관계와 소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들을 탐색하고, 이러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의 대인관계와 소진 간의 심리적 기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은 탐색적 방법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

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횡단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간에는 개념적 순환이 있을 수 있다. 즉, 소진된 상태에서 좌절된 대인관계육구,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부정적인 동료관계를 더 보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연구가 되려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 종단 연구를 통해 이들의 인과 관계를 보다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것과 반대 방향으로, 즉 소진이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부정적인 동료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 혹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이 좌절된 대인관계육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부연하면,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 양방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적 관계가 적합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거나 역방향으로 연구 설계를 하여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여섯째, 부정적인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소진을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다른 교사와의 소통은 소진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홍우림, 2015). 나아가 사회적 지지가 교사의 심리적 소진의 보호요인으로 완충작용을 하기에(Delia & Patrick, 1996; Kruger, Botman, & Goodenow, 1991), 부정적인 동료교사와의 관계가 소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의 소진에 대한 기존의 경험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변인이 어떤 연구에서는 중요한 변인으로 설명되고 다른 연구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변인으로 나오기도 하며 요인 간 상관 정도도 연구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홍우림, 2015). 뿐만 아니라 소진이 개인이나 학교 특성과 같은 단일 요인에 의해 일방적 혹은 단편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있다(박연옥, 2013; Maslach & Leiter, 1999). 보다 구체적으로, 교사 소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고, 직무만족도(유미나, 신나리, 2013) 및 업무스트레스(Wagner, Forer, Cepeda, Goelman, Maggi, Angiulli, Wessel, Hertzman, & Grunau, 2013)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동료관계 등의 사회적 지지가 교사 소진을 감소시킨다고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교사가 사회적 지지를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보다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면 소진이 감소되기도 하나, 사회적 지지를 업무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만 의사소통하는 통로로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교사의 적응을 저하시켜 소진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Chang, 2009).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사 소진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혼동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교사의 소진을 보다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연구 및 심리적 소진 과정이나 체험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 부하량이 .30미만인 자기비난 관련 문항 4개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3개의 하위척도만을 이용하였다. 사실상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한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요인부하량이 .30이하로 낮은 문항들을 제거하고 사용하였다(예: 김혜원, 임지현, 이지연, 2016; 이아름, 이민규, 2013). 그러나 연구들마다 제외한 문항들이 일관적이지 않아 문항 제외에 대한 이론적 혹은 논리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기비난 문항들을 제외하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척도가 포함해야 하는 자기비난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관련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동안 교사 소진에 대한 연구가 학생·학부모·직무 측면에서 그 원인을 살피는데 주로 초점을 맞춰 왔던 것과 달리 동료교사들 간의 인간관계 질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매개경로는 소진의 고통을 호소하는 초등교사를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끌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즉, 초등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부정적인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더라도 이에 영향을 받는 자신의 대인관계기대와 정서조절전략을 탐색하도록 돕고, 이를 적응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교사 소진을 완화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강진아(2010).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이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 권석만(1995). 대학생의 대인관계 부적응에 대한 인지 행동적 설명 모형. **학생연구**, 30(1), 38-63.
- 김미연(2009). 특수학급 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소진의 관계에서 개인적 교수 효능감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김보미, 유성은(2012). 대인관계 외상 경험자들의 사회적 유대감, 정서 조절과 자살 생각의 관계.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31(3), 731-748.
- 김성은(2013). 초등학교 직무환경이 교사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김소희(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김은숙(2008).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전문성 인식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의 관계. **아동복지연구**, 6(2), 1-18.
- 김의철, 박영신(2004). 한국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과 신뢰: 청소년과 성인의 지각을 통해 본 토착심리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103-129.
- 김지은, 안선희(2007). 영아교사의 개인적 배경 및 근무여건과 사회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8(3), 149-162.
- 김효진(2014). 중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정도에 따른 소진 예방프로그램 요구 분석.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원, 임지현, 이지연(2016). 청소년의 가족분화와 걱정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3(2), 267-293.
- 나숙임(2013). 직장인 스트레스 분석: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노종희(2001). **교육행정학 이론과 연구**. 서울: 문음사.
- 박미화(2016).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3), 109-128.
- 박수진, 손은령(2011). 초등학교 여교사의 심리적 안녕감 구성 요소와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의 관계. **교원교육**, 27(3), 151-166.
- 박연옥(2013). 교사의 지각된 학교상담역량이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주연(2014). 스트레스와 소진. **제 6차 학생정신건강 포럼 학생 정신건강과 교사소진 자료집, 4-16**. 한림대 자살과 학생정신건강연구소.
- 배병렬(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손형국(2014).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의 교직문화 탐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송명숙(2015). 보육교사가 지각하는 직장 내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과 심리적 소진 간의 구조 모형 분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유아교육 연구, 35(6)**, 377-396.
- 송미경, 양난미(2015). 한국 초등학교 교사 소진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6(3)**, 195-214.
- 송병호, 최규정(2000). 다중공선성에 관한 연구. **통계연구소논문지, 2(1)**, 61-93.
- 송소원, 장석진, 이정화, 조민아(2010). 직무스트레스와 교사 효능감이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적응 유연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원교육, 26(4)**, 17-37.
- 신민주(2012). 교사의 정서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오미영(2014).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고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유미나, 신나리(2013). 보육교사의 소진과 관련된 직무만족도와 직장 내 사회적 지지. **생애학회지, 3(2)**, 73-85.
- 이아름, 이민규(201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신체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1)**, 45-61.
- 이자영, 최용용(2012).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을 매개로 하여. **상담학연구, 13(3)**, 1481-1499.
- 이정희, 조성연(2011).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시설장, 동료교사와 가족의 사회적 지지. **아동학회지, 32(1)**, 157-172.
- 이지현(2008).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애착과 인지왜곡의 중재 및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임종호, 최경일(2010).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사, 동료 및 가족의 지지를 중심으로. **시각장애연구, 26(1)**, 151-166.
- 임지윤(2011). 교사의 정서노동과 정서조절이 직무 스트레스, 소진 및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유정이(2002). 교육환경의 위험요소와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교 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5(2)**, 315-328.
- 유정이, 박성호, 유성경(2003). 상담자와 초등교사의 심리적 소진 관련변인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구, 11(2), 111-120.

- 조민호(2010). 대인관계 심리학적 모형을 통해 본 한국군의 자살.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조환이, 유선아(2014). 교사소진 연구 동향 분석. **뇌교육연구**, 13, 77-100.
- 최명운(2010).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최미례, 이인혜(2003).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 존중감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363-383.
- 최우경(2013). 대학생 생활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좌절된 대인관계욕구 및 자살생각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최우경, 김진숙(2014). 대학생 생활스트레스와 자살생각의 관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과 좌절된 대인관계욕구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1), 1-25.
- 하광굉(1989). 초등학교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하재운(1996). 초등교사의 인간관계와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 홍세희(2011). **Program 1 구조방정식 모형: 초급**. 홍세희 교수의 고급연구방법론 워크샵 자료.
- 홍우림(2015). 초등학교 초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28(3), 255-28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toret, F. D. (2006). Stressors, self-efficacy, coping resources, and burnout among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pain. *Educational Psychology*, 26(4), 519-539.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 Chang, M. L. (2009). An appraisal perspective of teacher burnout: examining the emotional work of teache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1, 193-218.
- Cherniss, C. (1980). *Professional burnout in the human services organizations*. NY: Praeger Publishers.
- Delia, C., & Patrick, T. (1996). Stress in clinical psychologis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42, 141-149.

- Garnefski, N., & Kraaij, V. (2007).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refers to the conscious, cognitive.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3(3), 141-149.
- Garnefski, N., Kraaij, V., & Spinhoven, P. (2001). Negative life events,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problem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8), 1311-1327.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3), 281-291.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Joiner, T. E.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Kruger, L. J., Botman, H. I., & Goodenow, C. (1991). An investigation of social support and burnout among residential counselors. *Child and Youth Care Forum*, 20, 335-35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rsh, H. W., Martin, D., James, P., & Richard, W. (2004). Why multicollinearity matters: A reexamination of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self-concept,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6(3), 518-522.
- Maslach, C., & Leiter, M. P. (1999).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teacher burnout: A sourcebook 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practi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slach, C., & Jackson, S. E. (1981). The measurement of experienced burnout. *Journal of Occupational Behavior*, 2(2), 99-113.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Ray, E. B., & Miller, K. I. (1994). Social support, home/work stress, and burnout; Who can help? *Journal of Applied Behavior Science*, 30, 357-373.
- Rodriguez, C. M., & Richardson, M. J. (2007). Stress and anger as contextual factors and

- preexisting cognitive schemas: Predicting parental child maltreatment risk. *Child Treatment, 12*(4), 325-337.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neidman, E. S. (1988). Some reflections of a founder.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18*(1), 1-12.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1-10.
- Van Orden, K. A., Witte, T. K., Gordon, K. H., Bender, T. W., & Joiner, T. E.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 72-83.
- Wagner S. L., Forer B., Cepeda I. L., Goelman H., Maggi S., D'Angiulli A., Wessel J., Hertzman C., & Grunau R. E. (2013). Perceived stress and canadian early childcare educators. *Child Youth Care Forum, 42*, 53-70.

* 논문접수 2016년 8월 2일 / 1차 심사 2016년 9월 9일 / 게재승인 2016년 9월 21일

* 김혜원: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강사.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 E-mail: wisdombase@hanmail.net

*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 E-mail: becoming@incheon.ac.kr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of Negative Peer Relationship,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Burnou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Teachers

Kim, Hye-weon*

Lee, Jee-y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peer relationship and burnout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83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greater negative peer relationship was associated with greater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And greater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was associated with greater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and greater burnout. In addition, greater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was related to greater burnout. Second, negative peer relationship did not necessarily led to greater burnout. Rather, negative peer relationship led to elementary school teachers' greater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which in turn predicted greater burnout. Third, negative peer relationship had an effect on burnout through the sequential double mediation of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an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negative peer relationship, burnout, Frustrated Interpersonal needs,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mediational effect, elementary school teacher

* First Author, Lecturer, Incheon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